

인쇄하기



인쇄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HOME \(/\)](#) > [로컬+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7\)](#) > [광주·전북·전남·제주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93\)](#)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농지은행사업 지원 강화

오충현 기자 | 승인 2022.04.03 13:59

| 86억원 확보...경영회생 등 수요증가로 전년 대비 113%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86억원을 확보해 농업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농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고령 은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3일 진도지사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농지은행사업비는 자연재해, 개인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비 26억원,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사업비 2억원, 이농·고령·은퇴농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매입을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비 34억원, 농지매매·임대차 등 6개 사업 24억원이다.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는 농지연금, 경영회생 등 농업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년도 사업비 76억원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113%를 확보했다.

특히 올해부터 농지를 사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자금 지원 단가를 10% 상향 조정하고, 농지연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연금가입연령 기준 하향(만 65세 → 만 60세), 연금가입농지를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에게 임대할 경우 월 지급액의 5%를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연금상품'을 신설해 보다 실효성있는 고령농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연춘 진도지사는 “공사에서 추진 중인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지원을 통해 ‘청년愛 희망을, 노후愛 행복을, 농업愛 미래를’ 이라는 公社 농지은행사업 목표 실현과 관내 농업인을 위한 선제적인 농지은행서비스 제공을 통해 진도군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도/오충현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충현 기자 기자

인쇄